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23
vol. 258



Cartier



Photo: Ekimov



Astonishing orange


HERMÈS
PARIS



Seamaster

PRECISION AT EVERY LEVEL

PLANET OCEAN
Co-Axial Master Chronometer

씨마스터는 솔로 프리 다이버부터 레이싱 요트 항해사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 모험가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39.5mm 스틸 소재의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은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케이스백에 특별한 해마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다이얼은 서머 블루 컬러로 제작되었으며, 그라데이션 처리된 바니시 트리트먼트를 더한 다이얼은 600M의 방수 기능을 나타냅니다. 오메가의 대양 항해 아이콘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심해에 도전하고 새로운 차원의 정확성을 선사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Ω
OMEGA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고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무역센터점 대구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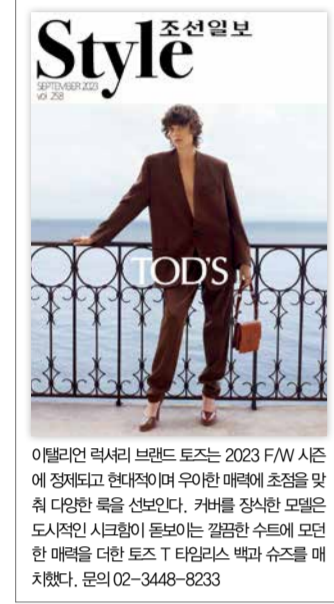
MONTBLANC

INSPIRE WRITING
montblanc.com



3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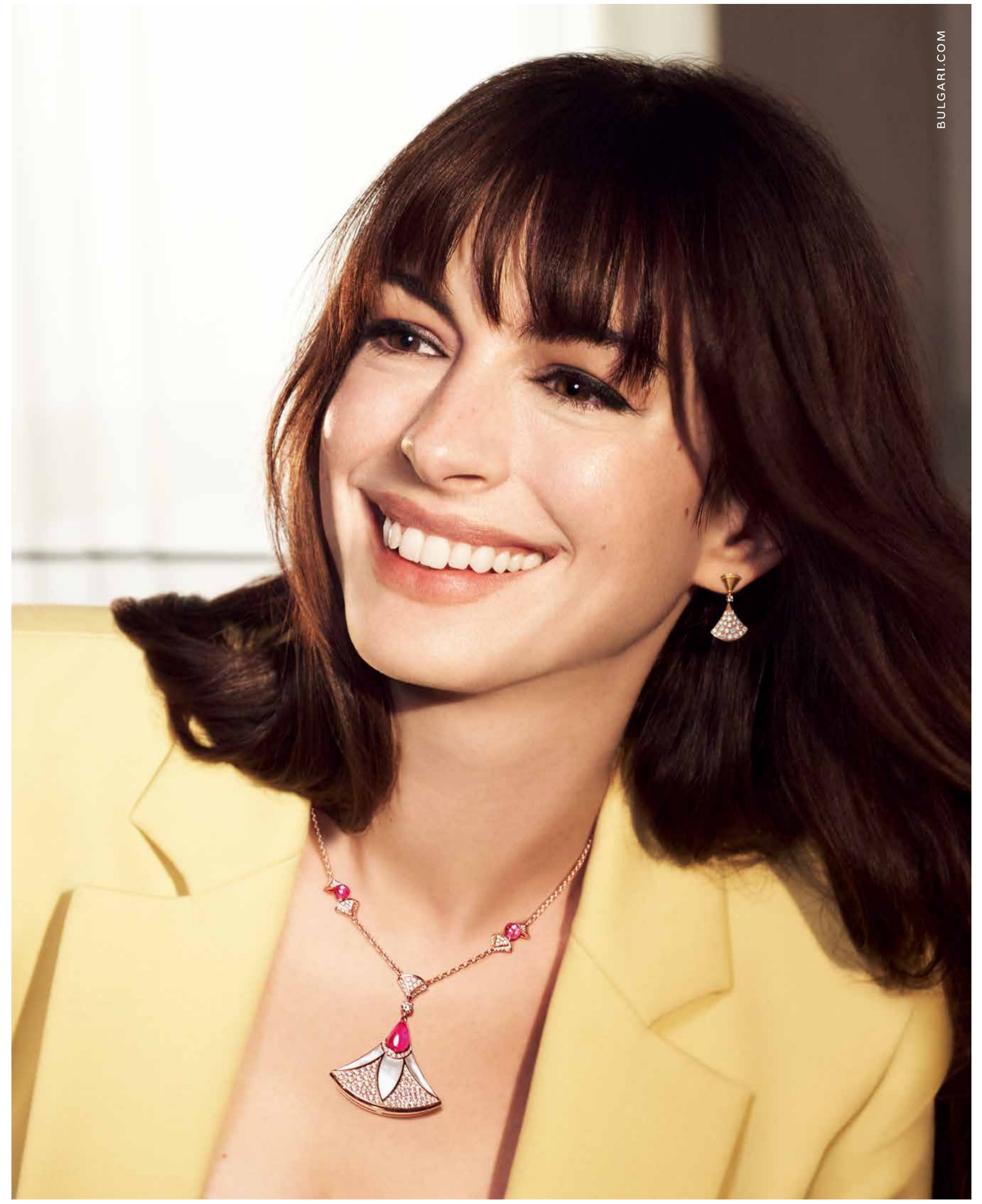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는 2023 F/W 시즌에 정제되고 현대적이며 우아한 매력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룩을 선보인다. 카버를 장식한 모엠펬 도사적인 시크함이 돋보이는 깔끔한 수트에 모던한 매력을 더한 토즈 T 타원리스 백과 슈즈를 메치겠다. 문의 02-3448-8233



12

- 15 **TRUE BLUE HIGHLY SPLENDID** 알록달록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화려한 유색 주얼리 컬렉션.
- 18 **현대미술을 품은 한옥** 문화 생태계를 들쭉거리게 하면서 온갖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양산해낸 9월 초 카이프 x 프리즈 아트 페어에서 우리네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미술 전시의 만남이 이뤄내는 오묘한 조화가 특히 눈에 띈다. 영원하기 없기에 더욱 교묘적인 공간의 진상이 뿔뿔히 퍼져 다닌 탓에 피곤한 발품 필을 잠시 잊게 해줄 정도로.
- 20 **백남준의 유투피어를 다시 꿈꾸다** 백남준의 작품은 언제나 다시 태어난다. 마치 고대의 유적처럼 발굴되어 우리를 사유하게 만든다. 그는 현대음악가였고, 비디오 아티스트였으며, 사상가이자 미래를 예측하는 사유자였고, 문화 외교관이었으며, 퍼포먼스 아티스트였고, 미디어 아티스트였다.
- 21 **DREAM SHAPE** 독특한 모양의 케이스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개성 있는 연출을 돕는 워치 컬렉션.
- 22 **DARING ELEGANCE** 품격 있는 진주의 우아함에 창의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불어넣어 탄생시킨 타사키의 아이코닉 컬렉션 '데인저 시리즈 (Danger Series)'에서 공개한 또 한번의 혁신적인 아트 피스.
- 24 **BAG IT UP** 지금 가장 궁금한, 올가을 뉴 & 에센셜 백 리스트.
- 32 **HEEL ME** 떨어진 낙엽 사이로 그녀의 우아한 발걸음에 사선이 머문다. 2023 F/W 슈즈 트렌드.
- 33 **AUTUMN IS CALLING** 갑자기 부는 찬 바람을 막아줄 잘 고른 가을 아우터 하나.
- 34 **THE LEGEND OF BLUE** 오메가 씨마스터 탄생 75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11가지 모델과 함께 더 넓고 깊은 바다로 향하는 여정.
- 36 **BEYOND THE TIME** 사철 워치메이킹 기술의 정수, J12와 함께한 사철의 뮤즈 페넬로페 크루즈가 말하는 시간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 38 **간혹린 하이퍼카 연대기** 성능, 가격, 희소성 등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하이엔드카를 가리켜 슈퍼카라고 칭했지만 요즘에는 이를 뛰어넘는 하이퍼카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다. 전통화의 물결을 품은 하이퍼카의 역사와 전통화의 물결까지 품은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 40 **LET'S GO! STAND BY ME!** 스마트 전자 기기의 대표 주자 LG전자가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깬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을 선보인다. 여행 가방을 담은 매력적인 외관의 LG 스탠바이미 Go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포터블 스크린으로 캠핑 등 실외 사용은 물론 거실, 침실 등 실내용으로 즐기기에 적합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스크린만이 줄 수 있는 크기와 선명함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누리는 것, LG 스탠바이미 Go이기에 가능하다.
- 48 **LIKE SECOND SKIN** 화사하면서도 촉촉하다. 게다가 맨 얼굴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럽기까지. 올가을 가장 기대되는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템 6.
- 49 **PERFUME HEAVEN** 당신의 특별한 취향과 분위기를 표현할 뉴 퍼퓸 7.
- 50 **EDITOR'S PICK** 제법 신선해진 날씨에 피부 컨디션을 책임질 뷰티템을 소개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258 September 2023



BVLGARI.COM

BVLGARI

ROMA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마케팅 | 박경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권신비 분해재판 | 리은 인쇄 | 티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일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촉촉한 그 입술

자연스러운 핑크색은 물론 입술 케어까지 챙길 수 있는 랩밤 3. (우부터) **프래쉬 슈가 립 트리트먼트 듀이 데이지** 은은한 핑을 기미한 누드 컬러로 비드 뿌리와 사랑수수 원액에서 추출한 슈거 성분을 담아 촉촉한 재형이 특징이다. 4.3g 3인1용. 문의 080-822-9500 **새싹 루주 코코 밤 928 핑크 딜라이트 텐더 핑크** 자연스러운 핑색을 연출할 수 있으며, 플라메놀과 울레오엑티브 오일을 함유해 입술을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다. 3g 4인1용.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클레드브 보메 프롬데브 립 트리트먼트 SPF 30/PA+++** 자외선 차단 기능과 스킵케어에 효과적인 모로코산 타인 추출물을 함유해 입술을 보호해준다. 4g 7인1용. 문의 080-564-7700 포토그래퍼 김사은 인턴 에디터 신정임

TIMELESS CLASSIC

이탈리안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에서 2023 F/W 컬렉션의 새로운 백을 선보인다. 토즈 T 케이스(Case) 백이 그 주인공으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더한 스퀘어 세이프 특징이다. 옆면의 T 타입 로고와 액세서리를 더 크고 뚜렷하게 배치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더한다. 어느 룩에 매치해도 클래식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패딩 처리한 핸들 스트랩과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갖춰 여러 방식으로 연출 가능하며, 지퍼 잠금장치와 뒷면 지퍼 포켓으로 편리하고 충분한 수납력 또한 갖췄다. 베이지, 라이트 블루, 그레이, 블랙, 브라운 등 다양한 컬러 및 소재로 출시되며, 일부 토즈 매장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탈리아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BE MY BAG

동블링에서 아카이브 그래픽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레더 디자인 모티브가 특징인 익스트림 3.0 컬렉션에 새로운 컬러를 추가했다. 기존 시그니처 블랙 컬러와 브리타시 그린 컬러에 블루 컬러와 포지드 아이언 컬러를 더해 컬렉션을 확장한 것. 등산 모티브의 M 록 장식이 돋보이며, 넉넉한 내부 수납공간과 여러 개의 포켓을 겸용해 기능성과 실용성 모두 갖췄다. 여기에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익스트림 3.0 컬렉션의 모든 레더는 탄소 중화 대상 공정으로 제작했으며, 재활용 섬유로 만든 인강으로 마무리해 패셔너블함을 챙기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다. 익스트림 3.0 M LOCK 4810 버클 백백 2백19만원. 문의 1877-5408



TINY LADY

작지만 눈부신 존재감을 뽐내는 타이니 워치 3. (우부터 차례대로) **가르미에 베누아 워치** 요조에서 영감을 받은 케이스가 우아함을 선사하며, 핑크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메종아이코닉한 카보숑 컷 스파이더 1개를 세팅한 비즈 크로이인 문본이다. 1천9백만원. 문의 1877-4326 **반클리프 아펠 베클리 워치** 지름 23mm의 18K 로즈 골드 케이스와 마더오브펄 다이얼의 조합이 다이아한 맛을 선사한다. 미러 폴리스한 두 줄의 골드 비즈가 케이스 측면을 부드럽게 감싸 생애를 부여한다. 거울 미경. 문의 1877-4128 **부세른 베벳 보헤 다이아몬드 워치** 스틸 비즈와 다이아몬드를 세심하게 세팅해 여성스러움을 배가하며, 다이아몬드를 12·3·6·9시 방향에 각각 세팅하고 마더오브펄로 장식했다. 8백만원. 문의 02-3467-8334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윤지영 어시스턴트 신정임



PERFECT FRAME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번지에 위치한 랄프 로렌 여성 플래그십 스토어는 랄프 로렌의 여러 세대가 공존하며 영감을 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 장소에서 영감을 받은 백 R. 888이 새로 출시된다. 뉴욕의 대표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뚜렷한 각도와 드라마틱한 곡선을 자랑하며, 고급스러운 카프 레더 혹은 실크 새틴 소재를 더해 우아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숙련된 장인들이 가죽 소재 중 깨끗한 부분만 정교하게 골라내 수작업을 통해 367개의 조각으로 재단했으며, 이렇게 디테일한 공정으로 매끄러운 광택과 부드러운 질감을 완성했다. 이이코닉한 백은 국내 유일 랄프 로렌 컬렉션 단독 매장인 랄프 로렌 컬렉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매장 혹은 랄프 로렌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3백만원. 문의 02-3467-6560



올가을 도시 전체를 물들인 아트 주간에 맞춰 뉴욕 럭셔리 패션 감성을 내세우는 편집숍 브랜드가 패션과 예술의 협업을 통해 업고 서울에 상륙했다. CJ ENM이 1923년 창립한 뉴욕 백화점으로 뉴욕캐들의 사랑을 받는 바니스 뉴욕의 동명 지체 패션 브랜드 '바니스 뉴욕'의 F/W 컬렉션을 내놓고 프리미엄 패션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CJ ENM은 바니스 뉴욕의 판권을 보유한 미국 어센틱 브랜드 그룬(ABG)과 바니스 뉴욕의 국내 패션 사업 운영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뉴욕 헤리티지 계승을 표방하는 패션 PB 바니스 뉴욕은 국내 최초로 3544 여성을 주요 고객층으로 겨냥하는데, 하나의 열에서 국내외 패션 상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듀얼 업 플랫폼인 '셀럽샵(CELEBSHOP)'에서 선보인다. 이번 시즌 컬렉션은 '모던 글라머러스(modern glamorous)'라는 주제 아래 우아하고 정제된 세련미가 돋보이는 패턴과 디자인, 고급 소재 등을 내세우며, 대표 상품은 트랜치코트, 체크 재킷 등의 아우터다. 바니스 뉴욕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유명 일라스트레이터 올림피아 자그놀리와 함께한 협업 컬렉션도 눈길을 끈다. 강렬한 색감과 부드러운 선으로 시물과 인물을 표현하며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 자그놀리의 긍정적 메시지와 우트가 담긴 '아트 X 패션 협업의 재기 발랄한 미학이 돋보인다.'

강렬하고 우아하게

자연에 대한 예찬을 담은 주얼리로 늘 놀라움을 주는 반클리프 아펠에서 새로운 네크리스를 출시한다. 반클리프 아펠의 상징적인 플로레뜨(Fleurette) 모티브가 로즈 골드 소재로 재탄생한 것. 7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눈부신 자태의 환관 5개로 완성했으며, 세심한 오픈워크, 세팅과 플리싱 기법 등을 적용해 실재로 봤을 때 더 강렬한 광채를 내뿜는다. 로즈 골드가 네크리인 위에서 은은한 파부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 강렬한 심루엣으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는 것은 큰 장점이다. 룩에 은은한 포인트가 될 네크리스가 필요하다면 단연 반클리프 아펠의 플로레뜨 네크리스를 추천한다. 문의 1877-4128



CHARMING STEPS

막힌 구두 대신 가볍게 신고 싶다면, 스타일리시한 슬림하이 제라다. (오른쪽 위부터) 흰 양말을 매달 소재 F 로고 프레임으로 장식했으며, 시원함을 더해줄 메탈릭한 실버 컬러를 더한 펜디 파스트 슬림백 2백만원. 문의 02-544-1925. 주얼리 스톤을 담은 스퀘어 버클에 워싱 포인트를 준 라진스톤 바클 패치워크 태블 슬림백 1백56만원 **폴세갠'바나**. 문의 02-3442-6888. 일코의 핑크 컬러 오버사이즈 보아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하트 모양 인솔이 귀여움을 더한다. 새틴 소재의 버클 보우 슬림백 1백69만원 **로지 비에**. 문의 02-3479-6115 포토그래퍼 김사은 인턴 에디터 신정임



매혹의 시간

상징력과 컬러, 경이로움이 가득한 피아제의 세계를 그려낸 워치 오브 컬렉션. 제마와 경계가 없고 오로지 화려함과 창의력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표현한다. 그중 오로지 피아제만의 제마를 헤아릴 수 있는 마제스티클 플라미지 워치를 소개한다. 약 6,237개의 옐로부터 오렌지 컬러의 58개 마카즈 컷 스파이더, 약 1,411개의 14개 마카즈 컷 루비, 약 51개의 86개 브릴리언트 컷 스파이더를 대담하고 화려하게 세팅했다. 다이얼은 호주산 블랙 옐로 마무라해 묘묘한 매력을 발산하며, 피아제 매뉴팩처 56P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1668-1874



FRESH VIBE

샤를에서 상스 후레쉬오드 베르랭을 새롭게 선보인다. 조향사 올리비에 볼루는 오드 베르랭의 높은 밀도에 기존 오드 투알렛의 생기 넘치는 매력을 결합하는 노하우를 새로운 퍼퓸에 담았다. 오드 투알렛처럼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선사하지만 강렬한 진함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알데하이드의 향을 강조한, 전보다 더욱 생동감이 넘치며 폭발적인 기쁨을 가득 머금은 제스티트르 향으로 심쾌한 무드도 시지한다. 이어서 제스티트르 더욱 풍부하고 깊고 풀러럴 향을 선사한다. 베이스 노트의 티크 우드 어코드는 강렬한 앰버 노트와 만나 깊이를 더해 더욱 깊은 진함을 느낄 수 있다. 50ml 17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아트 주간에 피어난 공간의 미학 현대미술을 품은 한옥

다양한 사람, 문화, 요소가 만나 섞이고 부딪히면서 비롯되는 '우연한 충돌'은 도시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큰 몫을 한다. 문화 예술 생태계를 들쭉거리게 하면서 온갖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양산해낸 9월 초 키아트 X 프리즈 아트 페어는 그 반가운 충돌의 장이었다. 양쪽 페어를 통틀어 무려 3백30개 갤러리가 참여한 이 매머드급 행사는 그 자체로도 화제 물이를 할 만하지만, 도시 산책과 공간의 미학을 탐하는 문화 향유자라면 입을 모아 말한다. 진짜배기는 '장외'에 있다고. 올해는 팬데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콘텐츠의 면면이 더 다채로워졌고, 덕분에 도시 곳곳에 매력적인 팝업 공간이 피어났다. 사실 '아트 주간(art week)'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게 말이다. 특히 우리네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미술 전시의 만남이 이뤄내는 오묘한 조화는 발군이었다. 어쩌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고풍적인 공간의 잔상이 거의 뽀빠질하듯 다닌 탓에 피곤한 발품 팔이를 잠시 잊게 해줄 정도로.

아트 바젤(Art Basel)과 더불어 세계 미술 시장을 떠받치는 양대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한 프리즈(Frieze), 지난해 9월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상륙하면서 프리즈 서울이 탄생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트 페어 키아트(Kiart)와 코엑스(COEX)에서 나란히 막을 올리고 '공동 티켓'을 도입하는 느슨한 협업 구도를 택했다. 그런데 수차례 면에서 '나 홀로' 우월한 성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프리즈 서울에 대해 환호만큼이나 골치 아픈 사신도 있던 게 사실이다. 페어 자체적으로는 개최지 서울에 대한 예외로 여겨질 만한 투자의 흔적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으니 더욱 그랬다. 그런데 브랜드가 아닌데 앞다퉈 동참하는 바람에 콘텐트가 다채롭게 생성되고 공간이 활기를 띠면서 '편이' 확연히 달라진 건 암연한 사실이다. '아트 페어 주간'이라는 말은 어색해도, 대중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예술 주간'이라고 할 만한 분위기는 물론 풍기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페어의 '브

랜드 파워를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권력과 거기에 내재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유기적 생명체인 도시의 에너지는 결국 그 구성원인 사람과 체류자의 행동에서 빛나는 게 아니냐. 올해 키아트 X 프리즈 기간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 개막해 공간과 장소에 탐색과 사색이 여기저기 솟아나던 차에,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 예술을 품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몇몇 한옥의 사례는 도시 축제의 묘미를 보여줬다.

1, 2 재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중로구 '열린문화공간' 풍경. 1번은 이 공간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3'의 모습. 건축가 조장규가 설계한 작품으로 한옥 이전의 집, 또는 악서 같이 잘려 있는 집의 형태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기억을 소환하는 공간 장치를 기획했다. 초안의 대.무 술을 지나 동그스름한 모양의 장식이 감성 패시브로 이루어진 교묘한 공예 그릇에 걸린 하늘 아래로 구슬을 갈아내는 동그스름한 모양이 보인다. photo by 고상연



<Time Curve>_리슨 갤러리(아름더 플레이스)

건축물에 대한 경험은 사실 '시각'이라기보다 '운동'이라는 공간에 공감하는 편이다. 건축물의 시각적 외관이라는 게 특정한 관점과 거리에서 각각 달리 보이는 것이지, 하나로만 수렴된 고정된 상이라는 건 존재하기 힘들다. 동시대의 흥미로운 철학자 그레고어 임 허만이 설명하듯 우리는 건축물의 주위와 내부를 걸어 다닐수록 그 건축물을 경험할 때를 이어나가. 우리네 한옥은 이 운동학적 경험의 밀도가 높고 흥미 유발도 역시 높은 경우가 많은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집으로 들어오면 중심에 자리한 마당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그 배경에 있는 거주 공간은 '와이'라는 개방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별도의 공간 같으면서도 단단한 벽으로 막혀 있지 않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연결되어 고요한 유동성이 흐르는 게 한옥의 특징이다. 건축학자들의 설명처럼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으로 들어오는 매력적인 개방성이 존재한다. 지난 9월 초 서울 북촌의 이름 더 플레이스에서 열린 리슨 갤러리(Lison Gallery)의 전시는 이 같은 유동성을 지닌 한옥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팝업 전시였다. 대문을 열고 우뚝 솟아올라가면 커다란 마당이 펼쳐지고 안채와 별채와 나누어 지리한 여러 칸의 방에 현대미술 작품이 저마다의 오라를 방출하고 있어 보는 풍경. 그리고 절로 느린 걸음으로 유유자적 가능하게 되는 예술 산책은 이 전시의 제목인 (Time Curve)와도 안성맞춤으로 잘 어울렸다. 아이웨이웨이, 세라 카냥햄, 나탈리 뒤버그 & 셉스 버그, 라이언 랜더, 시라제 후시야리, 에니시 카쿠에, 오토봉 영랑가, 로르 프루보, 셉스칼리 등 기성 작가와 신진 작가를 함께 소개한 기획전으로 시간, 우리가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주제로 다뤘다. '시간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전시와 한옥 공간' 건축은 기원에 근거를 둔 시간적 예술 형식이라는 표현을 삼가해보면, 이처럼 잘 맞는 공간이 있을까 싶은 곳이다.



1 한탄을 비롯해 세계 유수 도시에 진출한 리슨 갤러리(Lison Gallery)는 키아트 프리즈(Kiart X Frieze) 주간에 북촌의 한옥 이름 더 플레이스에서 팝업 전시 (Time Curve)를 진행하고 9월 10일 막을 내렸다. 안채 앞에 인형에게 펼쳐진 마당에 놓인 영국 작가 줄리언 오퍼의 조각 작품 'Figure' 시리즈가 보인다. 2 안채 거실의 마당이 내려다보는 위치에 프랑스 작가 로르 프루보의 작품이 놓여 있다. 3 별채 옆 아주 작은 방에 와일드 사의 드로잉 작품(2019년 작)이 앙증맞게 걸려 있다. 4 에니시 카쿠에와 시라제 후시야리 작가의 작품이 한방에 전시됐다. * 1~4 photo by 고상연



양혜규 <동면 한옥>_국제갤러리 한옥

지난해에 이어 올해 키아트 X 프리즈 주간에도 꾸린 구역별 야간 프로그램(한남상청창립 날이 등)은 아트 주간을 도시 축제답게 만든 데 일등 공신이다. 지난 9월 7일 열린 '상청 날'에서 제일 북적댄 인기 스폿 중 하나는 양혜규 작가의 <동면 한옥>을 선보인 국제갤러리 한옥. 국제갤러리의 주 전시관인 K 1~3관은 세계적인 작가 에니시 카쿠에 전사로 인파가 몰렸지만 단독 건물인 한옥 전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터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을 정도였다. 한동안 사점으로 꾸렸던 이 아담한 한옥 건물은 다시 공사를 거쳐 추후 본격적인 전시장으로 쓰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아쉽지만, 그 과정이인 만큼 그래서 전시 제목도 '동면'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노출된 벽이나 그 벽의 자국 혹은 낙서가 훤히 보이는 상태에서 양혜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의 미학을 선사한 점으로 위로 삼을 만하다. 양혜규 작가는 인천의 한 민가(폐가)에서 국내 첫 개인전 (사동 30번지)을 가졌는데, 당시 빨래 건조기, 깨진 거울, 옷걸이 등 '유령 같은' 실을 상징하는 장치로 비미술적 재료와 낯선 오브제를 곳곳에 놓아두었다(이런 요소들은 이후 양혜규의 조각을 표상하는 대표작인 오브제로 자리 잡았다). <동면 한옥>은 (사동 30번지)에 비해 훨씬 더 정갈한 환경에서 전개되지만 천장 조명을 마다하고 아간에도 손전등을 의존하게 하는 전시 연출 방식과 '시공 중인 한옥'이라는 공간이 그려진 첫 전시를 떠오르게 하는 평이 나온다. 가능하다면 낮과 밤의 공간 미학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좋다.



1~4 국제갤러리 한옥 양혜규 퍼포먼스 '동면 한옥' 설치 모습. 작가는 제목의 '동면'이 주는 느낌을 전시 연출의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관객을 가장 먼저 자각하는 것은 여러 한옥의 담배와 장미가 흩날리는 전기 양초들. 한옥의 어느 구석에는 조각작업이 방치된 듯 바위에 놓여져 있고, 또 다른 구석에는 저명한 한옥이 그려진 조각작업이 가득 들어차 있다. 비교적 협소한 한옥 공간 내부에 높은 밀도로 전시된 작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제작 시기도 모두 다르다. *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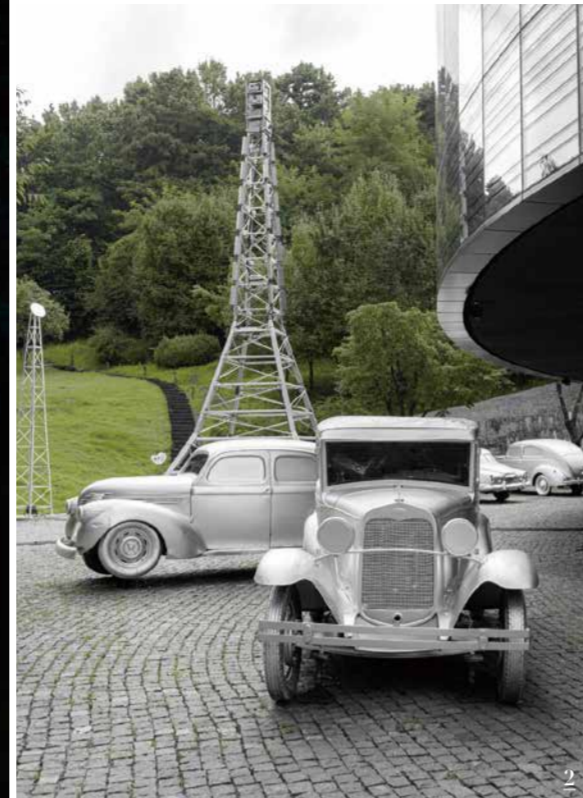
<What's Up / Seoul '12 Masters'>_LVH 아트(양태오 한옥)

올해 키아트 프리즈 주간에 북촌 한옥 전시 공간에서 인근히 입소문을 모은 또 다른 볼거리는 디자이너 양태오의 한옥에서 열린 기획전 (What's Up / Seoul '12 Masters)였다. 프리아트 대문을 주로 하는 이름 더 플레이스와는 다른 매력은 품은 개인 사적인 주거 공간. 역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리 크지 않은 크기의 정갈한 마당 풍경부터 시야에 들어오는데, 잠시 서서 우아하게 하늘로 뻗은 나무를 보고 있노라니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심의 민 집들을 금세 잊게 해준다. 아무래도 서점에서 예전처럼 운영하는 전시라 대 규모 관람객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이 전시를 접한 행운을 지닌 이들은 마치 보물창고 하듯 집 안 곳곳을 다니다가 미술품을 맞닥뜨리며 감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한옥 내부에는 모두 7개의 방(침실, 외인룸, 다도실, 거실, 다방, 욕, 사재, 지하실)이 있는데, 이 공간을 아무렇게 활용했는지 큐레이터가 선정한 12명의 작가 작품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앤디 워홀, 이우환, 알렉산더 칼더, 장-미셸 바스키아, 존 체임벌린, 가스 해링, 쿠사마 야요이, 조르조 모란디, 나라 요시모토, 게르하르트 리히터, 스타니 휘트니, 루카스 아루다 등이다. 작가 명단으로만 보면 '미술관급' 구성이다.

이번 기획전에 포함된 전시품 말고도 서적, 오브제 같은 소품이며 빈티지와 컨템퍼러리의 조합이 흥미로운 거구, 미술품 등 양태오 디자이너의 공간을 눈에 띄는 '집 구경'이 '불꽃'한 덩어리였음은 물론이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다른 공간이 펼쳐지는데, 그 공간들이 커다란 중첩되면서 만들어낸 아담한 공간 속, 혹은 그 시야에 무심히 있어놓은 듯한 미술품이나 소품과 마주치는 순간의 외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미 예술의 기운이 흐르는 양태오의 아가자 개인 주거 공간을 자신의 전시 작품과 잘 부딪혀낸 큐레이터 로렌스 반 헤이건(Lawrence Van Hagen)은 LVH 아트를 살릴때 전후 미술, 동시대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투스를 하고 있는데, 6년 전 역시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전시를 한 뒤 이번엔 '운 좋게' 양태오의 한옥에서 두 번째로 기획전을 열었다고 한다. 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두고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니 웬걸, '기쁘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무래도 관람 안까지 입장에서는 갤러리의 화이트 큐브식 공간에 비해 육체적으로 힘든 동선이었다는 생각이 그려야 쓰였다. 하지만 '결과가 좋았다'며 환히 웃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중의적 기쁨이었음을 이내 깨달았다. 글_고상연



1 양태오 디자이너의 북촌 한옥에서 펼쳐진 로렌스 반 헤이건(Lawrence Van Hagen)의 기획전 예술품이 우연히 작품이 걸려 있다. Lee Ufan, 'Dialogue'(2014). 2 창가에 걸려 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Yayoi Kusama, 'Pumpkin OQR'(2000). 3 마추 뱀뱀 땀 오로록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주치는 마당의 풍경. 4 안쪽에 자리한 또 다른 마당의 모습. 프랑스 작가 장-미셸 바스키아의 육체적 벽돌 모양의 조각이 놓여 있다(기획 전시 작품은 아니다). * 1~4 photo by 고상연



백남준의 유토피아를 다시 꿈꾸다

백남준의 작품은 언제나 다시 태어난다. 마치 고대의 유적처럼 발굴되어 우리를 사유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나 있을까? 전시 산책을 하다 보면 여전히 어디에선가 튀어나오는 그의 새로운 작품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그는 현대음악가였고, 비디오 아티스트였으며, 사상가이자 미래를 예측하는 사유자였고, 문화 외교관이었으며, 퍼포먼스 아티스트였고, 미디어 아티스트였다. 그가 작품으로 예측한 기술이 모두 현재형이 된 시점에서, 그가 현존한다면 과연 그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멀티버스, NFT 등 최첨단 기술의 변화가 바뀌어나가는 지금의 삶과 예술이 그가 추구했던 아름다움과 조화에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는 매 순간 기술과 이어진 예술로 낙관적인 미래를 꿈꿔왔으니까.



만약 백남준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는 어쩌면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통해 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 수많은 행성을 대상으로 '굿모닝 미스터 오웰' 같은 시리즈를 발표할지도 모르겠다. "20세기 말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자연과 인류가 전자 매체를 매개로 공생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라고 백남준이 말했다(1993년), 자연과 인류 그리고 우주와 어떤 매체로 공생할 수 있을지에 관련한 그의 말이 언이 무척 궁금하다. 거기에는 분명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테니 말이다. 이미 그는 인간과 기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유토피아를 꿈꿔왔고 이를 작품으로 실현했다.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작품이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해도, 사실 백남준의 작품은 그의 생각처럼 어떤 순간에도 직관적인 아름다움을 준다. 태풍이 불기 전에 시원한 바람의 아름다움을 느끼듯 그의 작품이 그렇다. 어떤 공에서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실사 내용을 모르고 보더라도 백남준의 작품은 어린이들도 금방 즐거워지게 만든다. 얼마 전 카피본과 프리즈 아트 페어의 동시 개관과 더불어 펼쳐진 이주 공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국내 최초 공개한 백남준의 대형 레이저 설치 작품 '트랜스미션 타워'도 마찬가지다.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타워'는 뉴욕 911 테러가 일어난 이듬해인 2002년 뉴욕 록펠러 센터 앞에서 세계에 평화와 위로를 전 달했던 작품이다. 당시 아카이브 영상을 보면, 뉴욕 록펠러 센터 앞 반짝이는 타워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백남준이 펼쳐어에 앉아 한 소리로만 피아노를 두드리는 광경을 보게 된다. 은색으로 칠한 오래된 자동차들(20세기)을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 사이로 개편된 타워가 서 있고, 담백하게 올라가는 피아노 소리에 따라 타워 위 레이저 선들이 하늘을 수놓는다. 백남준의 레이저 협연자 노먼 빌라르가 백남준의 피아노 시연에 맞추어 네온과 레이저가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해 노년의 거장을 도왔다. 백남준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레이저 광선은 대단히 신비스럽고, 달콤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던 말이라고, 당시 투병 중

이었던 백남준에게 레이저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였다. 20년 만에 국내에 첫 공개된 '트랜스미션 타워'는 클래식 자동차 5대, 모차르트의 진주곡과 함께 백남준아트센터 뒤뜰에서 선보였다(12월 30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특별전 '트랜스미션: 나에게 말기' 전시의 일환). 레이저와 네온이 만들어내는 빛도 신비롭지만, 백남준을 오묘주한 유제훈 작가의 레이저와 사운드 디자인이 더해지며 현대성이 증폭되었다. 먼 우주에서 오는 주파수 같은 시연도와 함께 타워의 레이저가 숲과 언덕에 쏟아질 때, 오히려 펼쳐지는 북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듯하기도 하고, 막대한 우주에서 행성을 보는 것도 같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백남준의 꿈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리고 우리는 백남준이 레이저 빛으로 상상했던 정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의 예견처럼 인간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볼게 된다.

1 백남준아트센터 특별전시 '트랜스미션: 나에게 말기'에서 공개한 백남준의 대형 레이저 설치 작품 '트랜스미션 타워'.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랜드는 레이저와 네온을 감상할 수 있다. 백남준, '트랜스미션 타워', 2002. 이미지 제공: 백남준아트센터 2 백남준,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1997). 리움미술관 소장. 이미지 제공: 백남준아트센터 3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실 내부로 아카이브 백남준의 아카이브 영상에서 2002년 뉴욕 록펠러 센터 앞 광장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다. 백남준의 피아노 퍼포먼스 '20/21'도 감상할 수 있다. 4 '삼원소: 삼각형'(1999). 백남준이 레이저 진동기 노먼 빌라르와 함께 제작한 작품으로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미지 제공: 백남준아트센터 5-6 두 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의 전시 <never read 1984> 풍경, 자연, 인간, 기술이 모두 녹아 있는 이번 전시는 포스트부터 인화, 드로잉, 사진 작품까지 볼 수 있다. 기술과 자연이 서로 순환을 이루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백남준이 인간과 기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등 장르 간 경계를 뛰어넘고 혁신과 통일을 실천한 세기의 낙관적인 예술가라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두 손 갤러리의 전시 <never read 1984>(10월 28일까지)에서 느낄 수 있다. 전시 제목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 소설 (1984)을 인용한 것이다. 사실 소설에서 1984년 미래는 테크놀로지 기계에 감응하는 통제된 디스토피아적 삶으로 묘사되지만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인공위성을 활용해 텔레비전 쇼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선보이며, 기계문명에 대한 절망과 비관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 전 세계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시인데, 그중 'Video Chandelier' 작품이 새롭게 다가온다. 인간과 자연, 기계의 공생을 꿈꾼 백남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식물과 TV를 결합하고 상드라에를 더한 무척 아름다운 작품이다.

"한편에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에 소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가끔 그 둘이 그리는 곡선이 교차한다(그러나 소통과 전혀 연관이 없는 예술 작품도 수없이 많고, 예술적인 면이 전혀 없는 소통도 많다). 그 지점에 사과 씨앗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다. 어쩌면 우리의 꿈일지도 모른다." 1980년 3월 뉴욕 현대미술관의 학예사 비바라 런던이 기획한 (비디오 관점들) 시리즈의 하나로 백남준은 임의 정적 정보라는 강연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소통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기술, 인간과 기술의 소통이었다. 하지만 꿈일지도 모른다고 여겨져. 평생 음악, TV, 비디오를 통해 소통, 공유, 분배를 꿈꿔왔던 그는 노년에 또 여전히 새로운 매체인 레이저를 탐구하며 사유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꿈이 담긴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작이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빛이 존재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백남준은 어쩌면 지금도 먼 우주 어딘가에서 소량의 에너지를 연주하면서 빛을 보내고 있을 것만 같다. 글 김유진(프랑스 에르메, 디올, 샤넬 CEO)



Dream Shape

독특한 모양의 케이스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개성 있는 연출을 돕는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차례대로) 브뤼게 레인드 네이플 라이트 핑크 8918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나폴리 여왕이었던 카롤린 무라(Caroline Murat)를 위해 제작한 역사상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다. 시계가 선보이는 핑크 컬러 모델은 백랍과 플라타에 1백7개의 다이아몬드를 새겨 로즈 골드 케이스에 라이트 핑크 컬러 다이얼, 핑크 스트랩까지 올 핑크로 제작해 여성스러우면서 우아한 감성을 물씬 풍긴다. 5천2백92만원. 문의 www.breguet.com

가운데에 백아 미니 광택을 거부하던 루이 까르띠에가 원형 시계를 깊게 들여 우아한 타원형으로 완성한 아이코닉 백아 워치의 미니 사이즈.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새겨 로즈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로 우아한 감성을 불러 일으키고, 로얄 블루 인테르로 클래식한 감성을 더하고 블루 컬러 스틸 링크 포먼트를 주었다. 나이비 블루 페이먼트 송이아자족 스트랩을 매치했다. 2천7백만원. 문의 1877-4326

다음 타원형의 정다각 케이스를 선보인 드 카스텔란이 디자인한 비대한 케이스로 세이프 박이 들어가는 케이스의 브랜드 아이코닉 워치. 스틸 소재에 백랍과 스트림 입부에 0.88카트 다이아몬드를 새겨 우아한 무드를 선사하고, 다이얼에는 말라카이트의 그린 컬러를 더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00-0104

브릴리언트 이클립스 스퀘어 알파벳 1968년 첫 출시된 워치로 시대를 초월한 영혼의 아이콘인 네 일 클러크 모양의 케이스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하고, 마더오브펄 다이얼에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클립스 로즈 베젤을 장식해 우아함을 더했으며, 버진 알라카이터 스트랩으로 꾸며졌다. 1천1백만원. 문의 1877-4128

블리만 디어스 드림 카라멜과 욕망의 모자이크 타임에서 영감을 받은 무제한으로 완성한 클러킹 모양의 케이스에 다양한 점스톤을 압축해 화려한 광택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 18K 로즈 골드 소재 핑크 오프 화이트 마더오브펄 다이얼을 매치하고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각각 4개의 토퍼즈, 탄자이트를 교차해 완성했다. 블루 알라카이터 스트랩으로 마무리했으며, 퀴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5천2백92만원. 문의 02-6105-2120

파피레 라망리토 토는 가로세로 27 X 33mm의 직사각형 케이스 디자인이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는 워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총 1,797개의 8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새겨 화이트 스틸 스트랩과 마더오브펄 다이얼 및 화이트 세라믹 크라운으로 완성해 우아함을 선사한다. 자체 제작 438P 울트라-신 기계식 핸드 워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6천3백50만원. 문의 1668-1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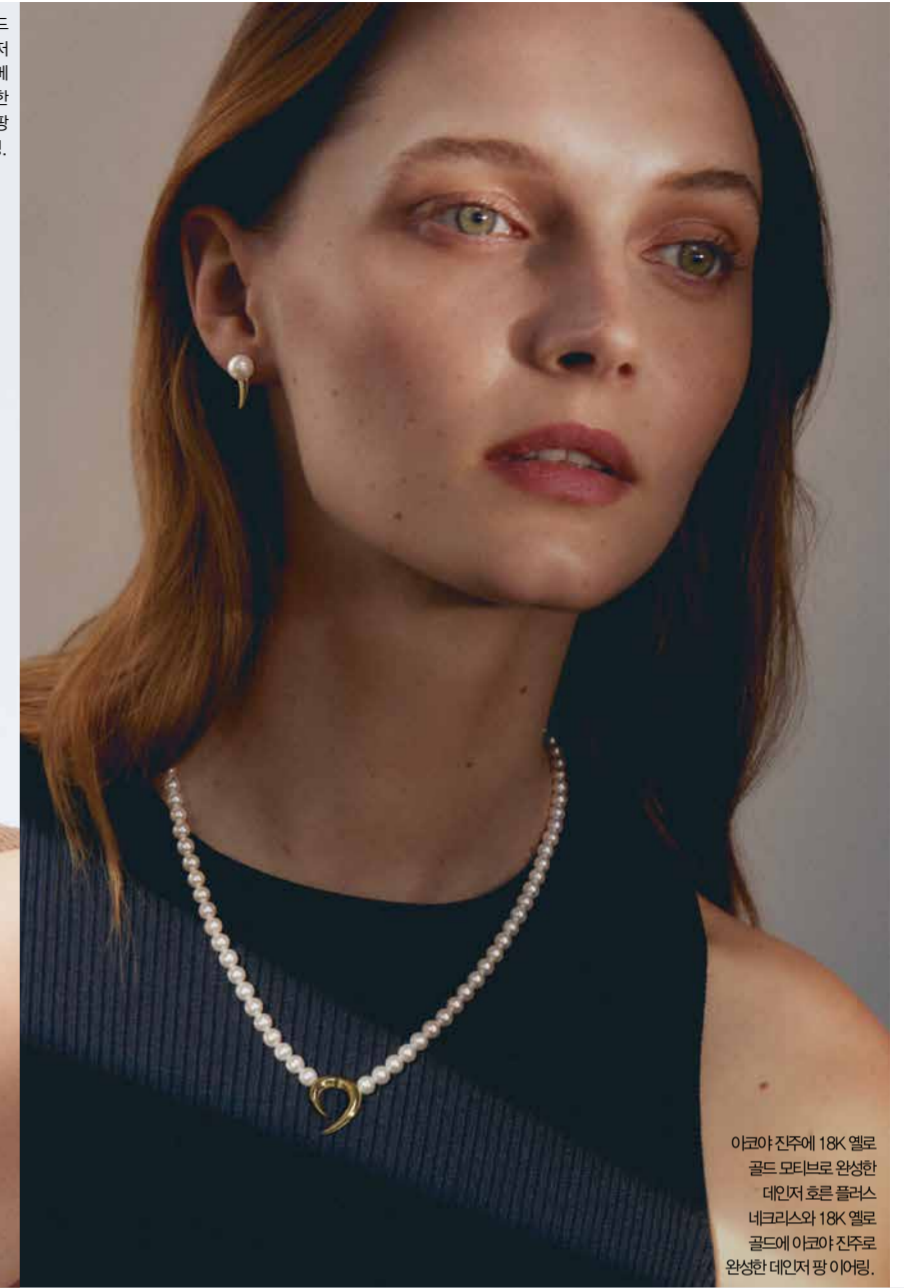
쇼에 조세핀 이그레트 조세핀 황후가 사랑한 스텔 세팅 기법인 페이 컷을 재해석한 모양으로 V자형 이그레트 디자인이 돋보인다.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0.2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62개를 새겨, 화이트 스틸 브리드 마린 및 인그레팅 다이얼의 12시 방향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새겨 넣었다. 1천1백만원. 문의 02-3442-3359

에르메스 H 아이비 브랜드 스텔링의 알라카이터를 모티브로 한 25mm 케이스 사이즈가 아이코닉한 감성을 더한다. 18K 로즈 골드 소재에 1백32개의 다이아몬드를 새겨, 마더오브펄 다이얼과 11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아가모 모던하면서 두 우아한 감성을 부여한다. 블랙 카프 스킨 소재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에디터 정영민

daring Elegance

품격 있는 진주의 우아함에 창의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불어넣어 탄생시킨 타사키의 아이코닉 컬렉션 '데인저 시리즈(Danger Series)'에서 공개한 또 한번의 혁신적인 아트 피스.

최고 품질의 소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금속공예 기술력을 더해 늘 새롭고 아름다운 주얼리를 창조해내는 파인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TASAKI)에서 새로운 주얼리를 선보인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데인저 시리즈(Danger Series)에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된 것. 데인저 시리즈는 식충식물, 야생동물의 송곳니와 뿔, 그리고 가시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디자인에 아이코닉한 감성을 부여하는 타사키의 대표 컬렉션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매끄러운 진주와 날렵한 뿔 모양 메달 텍스처의 대비로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인저 호른(Danger Horn) 컬렉션과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송곳니를 모티브로 한 독창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매력의 데인저 팡(Danger Fang) 컬렉션으로 이뤄져 있다. 다이내믹한 디자인에서 자연의 힘과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며, 타사키에서 직접 생산하는 고퀄리티 진주로 완성해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소재와 주얼리 제작에 대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독창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얼리인 것. 먼저 데인저 호른 컬렉션에서 가장 중심적인 모티브가 되는 것은 바로 2개의 뿔이다. 이를 결합하고 새롭게 배열해 완성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예리한 곡선이 주는 아슬아슬하면서도 다가가고 싶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데인저 호른 컬렉션의 연장선상에 있는 데인저 호른 노벨(Danger Horn Novel) 컬렉션과 데인저 호른 플러스(Danger Horn Plus) 컬렉션에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준다. 데인저 호른 노벨 컬렉션은 둥글고 매끄러운 진주가 공중에 떠 있는 듯 예지는 뿔 모양 모티브에 감싸안겨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옐로 골드 호른의 실루엣을 통해 쿨하면서도 진주 특유의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호른에 새로운 요소를 더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컬렉션은 비데칭의 호른 양 끝부분이 서로 마주하게끔 유니크한 변주를 더한 디자인으로 젊은 감성과 신선함을 준다. 좀 더 심플하면서도 가볍게 호른 컬렉션을 재해석해 다양한 레이어링과 연출로 데인저 컬렉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링은 하나만 착용해도 좋지만 여러 개 레이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을 더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다이아몬드 파베 이어링, 아코아 진주에 날렵한 팡 모티브를 더한 데인저 팡 다이아몬드 파베 이어링.

아코아 진주에 18K 옐로 골드 모티브로 완성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네크리스와 18K 옐로 골드에 아코아 진주로 완성한 데인저 팡 이어링.

1 화이트 골드에 아코아 진주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다이아몬드 파베 이어링과 18K 옐로 골드에 아코아 진주 3/4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데인저 팡 이어링. 2 아코아 진주와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포인트를 준 데인저 호른 다이아몬드 파베 네크리스. 3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남양 진주로 완성한 데인저 호른 다이아몬드 파베 이어링. 4 화이트 골드 팡에 다이아몬드 파베를 더하고 아코아 진주로 마무리한 데인저 팡 네크리스. 5 화이트 골드 소재 호른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다이아몬드 파베 이어링. 6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뿔 모양 모티브가 아코아 진주를 품고 있는 데인저 호른 노벨 네크리스. 7 데인저 호른 노벨 이어링. 8 18K 옐로 골드 소재에 아코아 진주를 세팅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링.



어랑했을 때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마지막으로 데인저 팡 컬렉션은 데인저 컬렉션을 사랑하는 마니아들이 더 볼드하고 독창적인 감성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식충식물과 야생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송곳니를 모티브로 무한한 창조력을 보여주며 진주가 뿔어내는 강력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주얼리란 착용할 수 있는 예술이라 믿는 타사키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예술적이고 유니크한 세계관을 경험하고 싶다면 새로운 데인저 시리즈 제품에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성정민**



옐로 골드에 아코아 진주로 완성한 데인저 호른 노벨 이어링과 남양 진주로 완성한 데인저 호른 노벨 더블 핑거링.

데인저 팡 이어링, 화이트 옐로 골드와 사쿠라 골드™까지 다양한 소재로 레이어드 연출이 가능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링, 진주로 장식한 데인저 호른 플러스 링, 데인저 호른 플러스 브레이슬릿.

실크 소재의 핑크 칼라 드레스
4백만원대, 니트 소재의 레드 칼라
드레스 6백만원대, 카프 레더 소재의
핑크 칼라 피카부 백 6백만원대,
카프 레더 소재의 블랙 칼라 오리גי미
미디엄 백 6백만원대 모두 **벤디**.
메시 소재의 라이트플러 크리스탈 미니
백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BAG it Up

지금 가장 궁금한, 올가을 뉴 & 에센셜
백 리스트,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위) 크링클 레더 소재의 예시 베이지 칼라
마고글럼 미니 크로스 보디 백 37만8천원
조이 그라이슨, (아래) 모헤어 실크 소재의
옐로 칼라 폴로 넥 크롭트 니트 톱 2백10만원,
벨벳 소재의 바이올렛 칼라 로 웨이스트 맨츠
가격 미정, 레더 소재의 레드 칼라 미디엄 체인
슬더백 5백10만원 모두 **구피**, 레더 소재의
그린 칼라 모노그램 엠보싱 호보 백 1백25만원
MCM, 레더 소재의 옐로 칼라 수퍼 미리자
플랫폼 슈즈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위) 페이퍼트 카프 레더 소재의 미니 롤업 백 가격 미정 사벨,
 (아래) 울 소재의 아이보리 컬러 비데칭 스퀘어 리브 니트 스웨터
 4백만원대, 울 소재의 아이보리 컬러 라운드 리브 니트 맨투 맨 6백만원대 모두
알리아어, 레더 소재의 다크 브라운 컬러 아보카도 백 가격 미정, 니파 레더
 소재의 샌드 베이지 컬러 아보카도 마티에 백 3백90만원 모두 **미우미우**.



캐시미어 소재의 브라운 컬러 코트 1천5백29만원
에르메스, 라벤 & 바진 울 소재의 포레스트
 리프 컬러 이르센 셔츠 1백84만원, 라벤 & 바진
 울 소재의 포레스트 리프 컬러 알라니 스커트
 2백55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화이트 컬러
 엑스트라 케이스 백 3백55만원, 코튼 캔버스
 소재의 타스만 토트백 4백18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카키 컬러 미안브로 배낭 백 3백90만원
 모두 **로로 피아나**, 카프 레더 소재의 블랙 컬러
 롱부츠 가격 미정 **보테가 벤테라**.

레더 소재의 핑크 컬러 셔츠, 코튼 소재의 화이트 컬러 탱크 탑, 레더 소재의 대님 프린팅 팬츠, 니파 레더 소재의 브라운 컬러 인트레치아토 워킹 앵클부츠, 카프 레더 소재의 레몬 컬러 인트레치아토 워킹 디테일 라지 사이즈 홈백, 니파 레더 소재의 화이트 컬러 인트레치아토 워킹 디테일 라지 사이즈 재킷리 백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루타**, 버진 울 소재의 스카이 블루 컬러 라운드드 부클레 코트 9백21만원 **베르사체**.

(위) 코트 레더 소재의 퍼플 컬러 미디엄 체스 숄더백 4백99만원 **바버리**, 레더 소재의 에더 그레이 컬러 미들드 숄더백 47만8천원 **조이 그리아스**, (아래) 스웨이드 소재의 블루 그레이 컬러 코트, 카프 스킨 소재의 미드나잇 컬러 허그 롬 핸드백 모두 가격 미정 **페라기오**.





스카이 블루 컬러의 스리 버튼 오버사이즈 코트, 스카이 블루 컬러의 브라시드 일파카 드레스, 브라운 컬러의 아이드 피츠 니 하이 삭스 모두 가격 미정 **이미**, 스위트 카프 스킨 소재의 브라운 컬러 프란지 디타일 컬러 덩스 애 트 백 1천9백38만원, 란송 카프 스킨과 스위트 카프 스킨 소재의 블루 & 옐로 컬러 컬러 투고 트레시유 울릿 백 1천1백73만원 모두 **에르메스**, 카프 스킨 소재의 화이트 컬러 랙스타트 더블 핸드 백 4백21만원 **발렌티노** 기라버니.



레더 소재의 레드 컬러 오버사이즈 재킷, 레더 소재의 레드 컬러 스커트, 브라시드 레더 소재의 화이트 컬러 펌프스, 레더 소재의 레드 & 브라운 컬러 백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카프 레더 소재의 니오 아가라 사피아어 블루 컬러 메시 체인 스몰 크로스 백 4백20만원, 카프 레더 소재의 트롤리 투르말린 푸크사아 컬러 스몰 핸드백 3백20만원 모두 **불가리**.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헤어 박화승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Lucia Diez, Amanda martins

구찌 02-3452-1521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MCM 1600-1976
프라다 02-3218-5331
불가리 02-6105-2120
렌디 02-514-065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이미 02-6956-8782
에르메스 02-542-6622
발렌티노 기라버니 02-2015-4653
로로 피아나 02-546-0615
보티카 베네타 02-3438-7682
버버리 080-700-8800
조이 그라이슨 080-202-2002
페리카모 02-3430-7854
베르사체 02-6905-3802
일리아이 02-6905-3413
샤넬 080-805-9628
미우미우 02-541-7443



Heel me

떨어진 낙엽 사이로 그녀의 우아한 발걸음에 시선이 머물렀다.
2023 F/W 슈즈 트렌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개성 넘치는 블루 컬러와 수즈 뒤쪽의 스퀘어 세이프가 감각적인 느낌을 전하는 미드 힐 슬링백 1백63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오리엔탈 스타일의 알코가 특징인 아이코닉한 페이즐리 자카드 패턴의 소재의 페이즐리 클로크 1백만원대 **에트루스카**, 문의 02-3446-1969. 날렵한 앞부분부터 깎인 모양의 핏까지 유려한 세이프가 돋보이는 카프 스킨 소재의 펄프스 가격 미정 **보타가 매가타**, 문의 02-3438-7892. 민칭 디자인이 소녀 감성을 배워주고,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숄더가족이 클래식한 멋을 전하는 스페타디올 펄프스 1백99만원 **디올**, 문의 02-3280-0104.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카탈리아** 장식을 더해 우아한 느낌을 선사하는 램 스킨과 그로그린 소재의 메리 제인 가격 미정 **시넬**, 문의 090-805-9628, chanel.com. 컷아웃 디자인과 골드 컬러 메탈의 FF 모티브를 기미한 핏이 세련된 느낌을 전하는 카프 스킨 소재의 델피나 하이힐 코트 수즈 1백만원대 **판디**, 문의 02-544-1925. 힐부터 수즈 전체의 유려한 곡선이 우아한 느낌을 부여하며 감칠맛이 특징인 숄더가족 소재의 바디 X5 가격 미정 **파카모**, 문의 02-2140-9666. 에디터 **윤지경**



슬러 메탈 홀스미트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아이보리 싱글브레스트 코트 개비디 트랜치코트 5백2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왼쪽부터) 이케로이에서 제작한 오버사이즈 핏의 라빈 블렌드 트루드 소재의 2023 프리즘 컬렉션 셀러 글렌 플레드 트루드 재킷 3백만원대 **빌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6004-0093. 트윈드한 타윈제크 패턴이 매력적인 플라게스타와 모, 엘리스타인 혼방 소재의 체크 블레이저 1백40만원대 **겐조**, 문의 02-3213-2340

Autumn is Calling

갑자기 부는 찬 바람을 막아줄 잘 고른 가을 아우터 하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부터) 100% 면 소재의 크롭트 스타일 디스트레스 데님 작업 재킷 가격 미정 **자황시**, 문의 02-546-2700.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패턴을 더한 면과 솔리드 면, 소재와 주머니에 카프 레더를 사용해 개성 있는 연출과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데님 재킷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아이사미 신영민

자연스럽게 옷의 실루엣을 잡아주는 부드러운 램 스킨 소재의 레더 코트 2천7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장강민**





The Legend of Blue

오메가 씨마스터 탄생 75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11가지 모델과 함께 더 넓고 깊은 바다로 향하는 여정.

1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케이스 백, 2.43mm의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스틸 브레이슬릿 또는 블루 라바 스트랩과 함께 착용할 수 있으며, 다이얼에선 아틀라스의 지구를 감상할 수 있다. 3 로동 도금 핸즈와 오록한 아워 마커, 인덱스 숫자블 리이트 블루 슈퍼루이노비로 마감했다. 4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



1932년에 출시한 세계 최초 민간 다이버를 위한 워치, 오메가 마린. 여기서부터 씨마스터 히스토리가 시작된다. 마린은 시계의 무브먼트를 보호하기 위해 코르크로 밀봉한 더블 케이스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그 당시 다른 워치메이커들은 성공하지 못한 제네바 호수 수면 73m 아래에서의 방수 성능을 입증하고, 뇌샤텔의 워치메이킹 연구소에서 실시한 수심 135m에서도 역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이버 워치로서 인지를 공고히 한 것.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오메가가 영국 국방부의 조종사와 항해사, 그리고 군인에게 11만 개 이상의 워치를 제공했고, 모든 시계의 케이스 밖에는 방수 손목시계를 의미하는 W.W.W를 인그레이빙했다.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히스토리가 모여 오메가 워치는 방수, 항자성, 견고성 등 극한의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요소를 갖춘 독보적인 워치로 거듭났다. 이후 1948년, 전쟁 기간에 개발한 기술력과 우아한 외관을 합한 도시, 바다, 국가를 위한 워치, 씨마스터 컬렉션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낙관주의와 탐험의 열기로 가득했던 그 시대의 씨마스터는 해저 모험가들이 열망하는 워치로 자리 잡았으며, 1957년 출시한 씨마스터 300이 새로운 궤도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지난 6월, 씨마스터 탄생 75주년을 맞이해 일곱 가지 아이코닉 모델로 총 11가지 새로운 워치를 선보인다. 청정한 바다를 연상시키는 서머 블루(Summer Blue)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신제품은 해양 보존을 위해 헌신하는 오메가의 정신을 담았으며, 각 모델의 방수 기능을 각기 다른 농도의 블루 컬러로 표현했다. 요트 위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부터 어두운 심해 탐험에 적합한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울트라 딥 6000M까지 씨마스터 서머 블루 컬렉션은 방수 성능으로 라인업을 분류하면서 오메가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에 경의를 표한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윤지영



요트 감성을 연상시키는 티크 패턴 다이얼과 오트 인덱스 등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쿠아 테라.



Beyond th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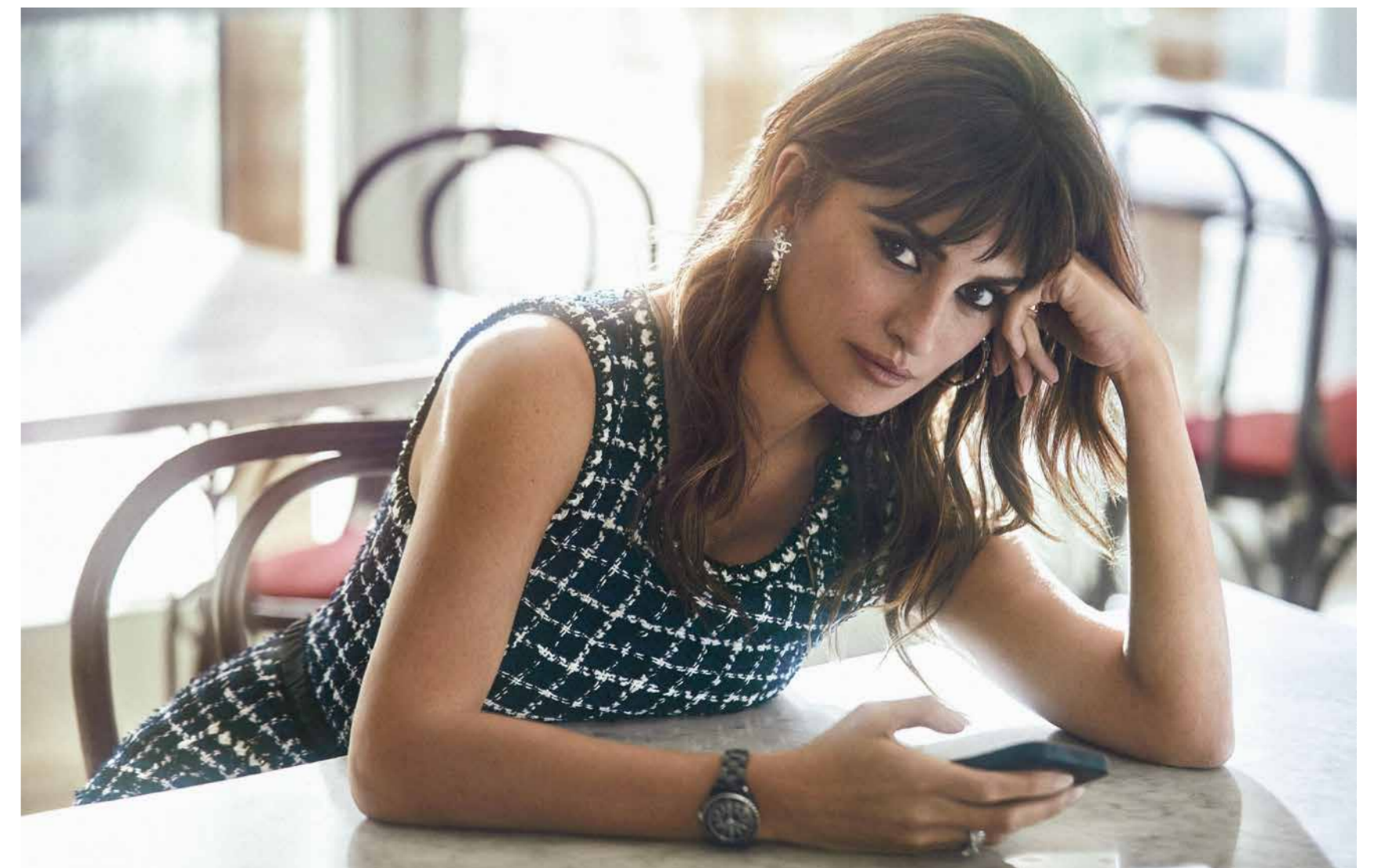
샤넬 워치메이킹 기술의 정수, J12와 함께한 샤넬의 뮤즈 페넬로페 크루즈가 말하는 시간에 관한 진솔한 대화.

J12는 샤넬의 기술적 위업이자 워치메이킹 노하우의 정수로 손꼽히는 워치다. 샤넬 워치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인 아르노 샤흐랭(Arnaud Chastaingt)이 디자인하고 스위스 라 쇼드퐁(La Chaux-de-Fonds)에 위치한 케니시와 공동 소유의 매뉴팩처에서 개발·조립했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2.2를 최초로 탑재한 33mm 모델은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시계 내부를 감상할 수 있다. 또 하우스의 상징인 원 형태의 오실레이팅 웨이트로 장식했고 심플하고 도회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블랙 또는 화이트 컬러의 견고한 세라믹 소재로 만나볼 수 있다. 샤넬의 뮤즈 페넬로페 크루즈와 함께한 인터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페넬로페 크루즈가 착용한 J12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지만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평소엔 언제 시간이 있다고 느끼나요? 반대로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때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교훈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늘 되짚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저의 최우선 순위기도 하죠. 가족은 제게 언제나 중요한 존재인데, 이는 저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 여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우리 가족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건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 이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이런 저의 신념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촬영하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시하며 작품을 고르죠. 20대에서 30대까지는 1년에 4편의 영화를 촬영했는데, 엄마가 된 후엔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를 양육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이죠. 제가 배우라는 것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작품을 하지 않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촬영 현장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시간은 고무 밴드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휴식 시간을 좋아하나요?** 감정이 가득 실린 장면을 찍다가 한두 시간 점심시간을 갖게 된다거나, 다음 장면의 조명을 바꿔야 해서 시간이 필요할 때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없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장면에 필요한 에너지를 온전히 유지해야 해서 완전히 연결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그 자리에서만만큼은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긴장을 풀면서도 캐릭터의 감정을 놓치지 않는 것은 까다로운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대기 시간에 적절하게 균형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그 이상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해줍니다. 자녀와 양육, 결혼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칼릴 지브란(Khalil Gibran)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시간의 흐름에 대해 "어제는 오늘의 기억에 불과하지만, 내일은 오늘의 꿈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에디터 윤자경





간추린 하이퍼카 연대기

비평가이자 소설가 존 버거는 '실질적인 것에 해당하는 '의식주형 물건과 자본주의의 조작에 이끌리는 '력서리'를 구별했다. 자동차는 당연하게도 두 가지 범주를 아우른다. 이미 상향 평준화된 자동차 생태계에서 '가성비' 빼어난 착실한 이동 수단으로 널리 소비되는 한편, 속도에 대한 욕망, 신분 과시, 심미적 희구 등의 다층적 요구를 품은 '력서리 모빌리티로서의 존재감 역시 전혀 시들지 않고 있다. 성능, 가격, 희소성 등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하이엔드카를 가리켜 슈퍼카라고 칭했지만 요즘에는 이를 뛰어넘는 하이퍼카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다. 하이퍼카의 역사와 진동화의 물결까지 품은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 편집자주

시작은 슈퍼카(Supercar)였다. 일반 자동차보다 월등히 비싸고 희귀하며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와 성능을 뽐내는 차를 일컫는다. 명확한 기준은 없었던. 상대적 가치였고, 스스로의 주장이었다. 물론 가격과 관련한 암묵적 합의는 있었다. 정치 상대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최고 속도가 대표적이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기록을 경신해왔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략 4초 이내, 시속 300km가 필요조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사이 변곡점이 찾아왔다. 엔진을 전가모터로 보완하거나 이에 대체하는 전동화(electrification)의 물결이 밀려오면서부터다. 전동화의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이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식계적 움직임이 엔진에 집착하던 자동차업계의 등을 떠밀었다. 테슬라의 도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자극이었다. 노트북용 배터리를 묶는 등의 황당한 고성능을 구현해 비싸게 팔았다. 기존에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무게를 줄이거나 엔진 배기량을 키워거나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었다. 슈퍼카의

2



특징과 오롯이 겹친다. 하지만 기록 경신은 더했다. 결국 엔진을 키워야 하는데, 배기가스 규제는 나날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모험과 자유를 상징하는 이동 수단

슈퍼카의 뿌리는 레이싱카다. 슈퍼카를 합법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차라고 정의하는 배경이다. 자동차는 1886년 카를 벤츠가 특허를 낸 이후 20세기 초까지 모험의 상징이었다. 밀과 마루 없이 거처처럼 정해진 궤도에 묶이지 않은 체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장거리 여행에 나설 수 있는 까닭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비행기보다 진입 장벽도 낮았다. 자동차 여행에 대한 인식은 당시 독일 매체 <여행 문화>의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자동차 여행은 경이롭다. 긴장 가득한 독립 의식, 진정한 비행의 느낌, 비밀 가득하고 오래된 낭만적 자양 도로로의 회귀, 계속해서 변하는 경치의 풍요로움, 이 미와 밤을 스쳐 지나가는 신선한 공기. 이 모든 것이 주는 느낌은 근사하다. 물론 상용하는 대기도 뒤따랐다. 각종 위험과 고장, 사고를 각오해야 했다. 도로의 폭군을 중요하는 사람들의 테러도 흔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무기를 소지하기도 했다. 또 여러 불확실성을 풀고 손실같이 달리기 위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동차 얼굴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긴장으로 눈과 귀, 입 주위의 근육이 팽팽히 당겨진, 단호하고 환한 표정을 띠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느끼는 흥분은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강했다. 이들의

자유와 속도에 대한 열망은 정년점이 뚜렷했던 초기 자동차 운전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당시 백과사전은 위생 항목에서 자동차의 효능으로 '모든 유기체의 활발한 사용, 신선한 공기로 피부와 폐 기능 강화, 신경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함을' 정했다.

대중과 부자를 겨냥한 두 갈래 진화

자동차는 예상보다 빨리 대중화의 길을 걸었다.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1908년 내놓은 모델 T의 성공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포드는 시골의 도매업자들이 소고기를 포장할 때 머리 위에 매달아 쓰는 수레에서 영감을 얻어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 한 대에 근로자 여럿이 둘러붙어 완성하지 않고, 벨트에 얹어 움직이며 순차적으로 조립하는 방식이었다. 포드는 미국의 공학자이자 경영학자 프레데릭 테일러의 연구를 참고해 동적 소요 시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했다. 생산 비용은 줄고 효율이 높아지면서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차 가격이 낮출 수 있었다. 모델 T는 1921년 전세계 신차의 60%를 차지했고, 1927년 단종 때까지 1천5백만 대가 팔렸다. 영국의 오스틴 세븐, 독일의 폭스바겐 비틀 등의 대중차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원조다. 부자들의 욕망을 자극했던 고성능 차 역시 꾸준히 양떼를 이어갔다. 고객에게 브랜드와 기술력을 알릴 기회는 레이스였다. 당시 자동차 제조업체와 레이싱 팀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았다. 주말에 치르는 경주에서 우수한 성능을 거머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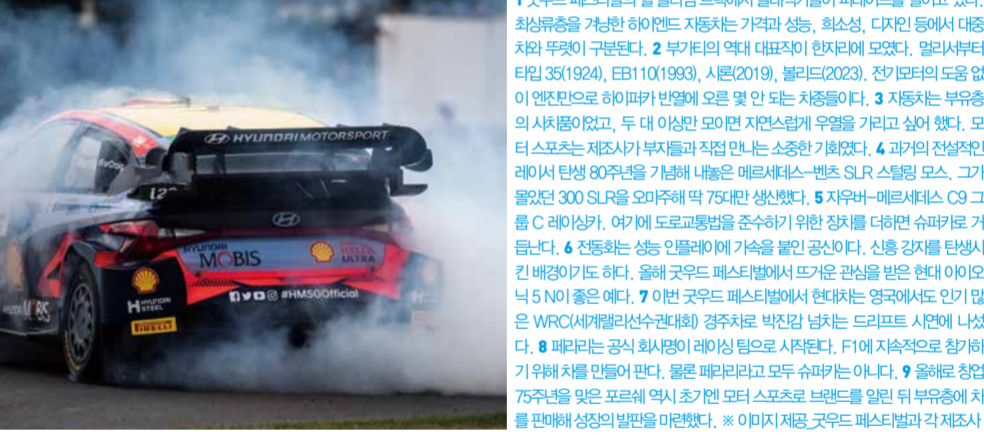


름을 알린 다음, 월요일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부자들에게 경주차를 도로 법규에 맞게 개조해서 팔아 돈을 벌었다. 페라리, 부기티, 벤츠, 포르세 등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위 슈퍼카 브랜드들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다. 모든 면에서 대중차와 장벽이 길을 갈았다. 이틀테면 소량 맞춤 생산이 기본이다. 일단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또 시트의 위치, 가죽의 컬러와 종류 등 고객에 따라 주문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수작업 공정의 비율이 높다. 가령 메르세데스-AMG는 17의 엔진을 1명의 장인이 조립한 뒤 명판을 붙인다. 이 때문에 슈퍼카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1대 만드는 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게다가 과잉이 마땅하다. 극한의 성능을 내기 위해 값비싼 소재와 고도의 기술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이처럼 특별한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교류한다.

전동화의 물결이 닥친 굿우드 페스티벌

매년 6월 말~7월 초, 영국 남부 웨스트사식스주의 해안도시에서 주말을 끼고 나흘간 치르는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 이하 굿우드 페스티벌)'는 부유층의 자동차 문화를 엿볼 기회 중 하나다. 참고로 굿우드 페스티벌은 협화나 자치체가 아니라, 리치몬드 공작이라는 영국 귀족이자 지역의 부호가 49km²나 되는 자신의 영지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축제다. 1948년 9대 리치몬드 공작이 3.862km 길이의 서킷을 개장하며 모터 스포츠와 안전을 맺었다. 하지만 1960년대 안전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경기 유치가 어려워졌다. 굿우드 서킷 또한 사.브로 존재감을 잃었다. 1993년 11대 리치몬드 공작 찰스 헨리 고든-레녹스(Charles Henry Gordon-Lennox)가 지금의 굿우드 페스티벌을 기획해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원래 그는 굿우드 서킷 행사를 되살리려고 했지만 허기가 여의지 않았다. 공여자들은 장소를 자택 입구에서 얼마까지 오는 9개 코너, 길이 1.86km의 언덕으로 바꿨다. 굿우드 페스티벌의 상징인 '힐 클리ம்ப(Hill Climb)' 경주가 태어난 배경이다. 전설적인 경주차와 드라이버, 최신 고성능 자동차를 보기 위해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모인다.

지난 30년 동안 시간과 영성으로만 점했던 굿우드 페스티벌을 취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방문했다. 지평이 일사하듯 굿우드는 거구 장인으로 유명하다. 1998년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 상표권을 인수한 뒤 생산 거점으로 낙점한 배경이기도 하다. 2층 시외버스는 행사장 입구에 설해 없이 가족 단위 관람객을 끌어들였다. 예매 표를 받는 부스 앞에는 압도감이 득실했다. 여가까지는 적당히 느슨한 지역 축제 분위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행사장으로 들어서면 활달라진다. 철저한 상업주의를 등에 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려는 최신 자동차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펼쳐진다. 흥미롭게도 20세기를 수놓은 명차들의 기록 뽐내기, 폭발음이 자락하던 굿우드 페스티벌에도 새로운 변화가 스며들고 있음이 포착됐다. 바로 전동화다. 활발한 전동화의 물결 덕분에 성능이 수직 상승했고, 신형 경주차에 태어는 움직임도 보인다. 예컨대 현대차 동차는 고성능 전가차 아이오닉 5 N을 굿우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창사 75주년을 기념해 굿우드의 긴박 격인 조형물까지 정령한 포르세보다 오히려 더 주목받았다. 아이오닉 5 N은 부스트 모드 기준으로 최고 출력 6500마력, 최대 토크 78.5kgm다. 0→시속 100km 가속 시간 3.4초, 최고 속도 시속 260km로 슈퍼카 못지않게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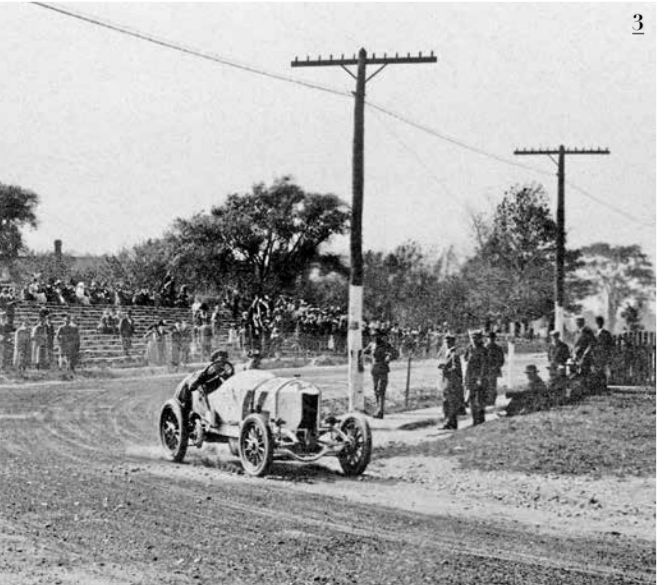


1 굿우드 페스티벌의 힐 클리빙 트랙에서 클래식들이 파워 드림을 뽐내고 있다. 최상층을 기념한 하이엔드 자동차는 가격과 성능, 희소성, 디자인 등에서 대중차와 뚜렷이 구분된다. 2 부기티의 역대 대표작이 한자리에 모였다. 말리나부터 타임 35(1924), EB110(1993), 시론(2019), 볼리도(2023). 전가모터의 도움 없이 엔진만으로 하이퍼카 반열에 오른 몇 안 되는 차종이다. 3 자동차는 부유층의 사치품이었고, 두 대 이상만 모인 자전식량계 우염을 기르기도 했다. 모터 스포츠는 제조사가 부자들과 직접 만나는 소중한 기회였다. 4 과거의 전설적인 레이서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내륙은 메르세데스-벤츠 SLR 스텔링 모스. 그가 몰았던 300 SLR을 오주체 막 750만 원에 팔았다. 5 자우버-메르세데스 C9 그룹 C 레이싱카. 07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다하면 슈퍼카로 거듭난다. 6 전동화는 성능 인플레이션에 가속을 붙인 주역이다. 신형 경차를 탄생시킨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현대 아이오닉 5 N이 좋은 예다. 7 이번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한자리는 영국에서도 인기 많은 WRC 세계 랠리 선수권대회 경주차로 박진감 넘치는 드로프트 사면에 나섰다. 8 페라리는 공식 행사인 레이싱 팀으로 사된다. F1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차를 만들어 낸다. 물론 페라리도 모두 슈퍼카는 아니다. 9 울트라 창업 75주년을 맞은 포르세 역시 초7엔 모터 스포츠로 브랜드를 알린 뒤 부유층을 타겟으로 삼아 성능의 발전을 마쳤다. * 01페이지 굿우드 페스티벌과 각 제조사

슈퍼카 압도하는 하이퍼카의 세계

하이퍼카(hypercar)는 기존 슈퍼카의 성능을 압도하는 차를 뜻하는 신조어다. 전동화는 성능 인플레이션에 가속을 붙인 주역이다. 크로이티아의 고성능 전가차 회사 라마의 C투는 각 바퀴에 물린 총 4개의 전가모터로 1,914마력을 내고, 0→시속 300km 가속을 11.8초에 마친다. 일본의 아스피크 아울은 2,012마력으로, 0→시속 100km를 1.9초에 마친다. 물론 엔진만으로 공극의 성능을 내기도 한다. 이번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부기티 볼리도는 W16 8.0L 쿼드터보 엔진을 얹고 1,850마력을 낸다. 그런데 무게는 경차

수준인 1,240kg에 불과하다. 마력당 무게비가 0.67kg으로 말 1마리 무게 약 반 근재리 미터를 끄는 셈이다.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2.2초, 최고 속도는 시속 501km 이상이다. 하이퍼카의 세계에는 가격 역시 화끈하다. 브랜드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만~50억원대를 내곤한 이유이다. 게다가 대부분 한정판이다. 예컨대 부기티 볼리드는 40대, 아스피크 아울은 50대만 제작한다. 희소성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수록 가격이 치솟는다. 미술품처럼 투자 대상으로도 안간가 끄는 이유다. 글 **김범**(메르세데스) 편집장



3



9

Let's Go! Stand by Me!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으로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사이즈의 스크린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스마트 전자 기기의 대표 주자 LG전자가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깬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을 선보인다. 여행 가방을 담은 매력적인 외관의 LG 스탠바이미 Go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포터블 스크린으로 간편한 이동성을 갖추어 여행, 캠핑 등 실외 사용은 물론 거실, 침실 등 실내를 오가며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스크린만이 줄 수 있는 크기와 선명함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누리는 것, LG 스탠바이미 Go이기에 가능하다.

가치 있는 도전을 만나다, LG 스탠바이미 Go

라이브 방송 '엘라쇼'로 진행한 사진 판매에서 단 10분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달성한 LG 스탠바이미 Go는 잇단 흥행 소식을 전하며 인기를 증명해냈다. 국내에서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출시 반년여 만에 북미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도 확대 출시될 예정으로, 국내뿐 아닌 해외에서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해외 출시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LG 스탠바이미 Go는 독보적인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을 볼지가 아닌, 어디에서 볼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LG 스탠바이미 Go의 무궁무진한 활용도에 소비자는 캠핑장 외에도 수영장, 발코니, 다락방, 연습실 등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만의 낭만 가득한 장소로 LG 스탠바이미 Go와 함께 떠나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장소와 상황에 따른 사용 예시를 만나보자.



공간의 경계를 넘는 스탠바이미 Go의 다채로운 스펙

생각을 뛰어넘는 창의적 디자인과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한 스탠바이미 Go.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각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가능한 이유. 네 가지 스펙을 공개한다.

01 몰입감 넘치는 입체적인 돌비 스크린과 사운드

스탠바이미 Go의 케이스이자 컴퓨터를 박스의 커버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 스크린과 스피커는 돌비(Dolby) 입체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20W의 스피커 출력으로 넓은 거실이나 캠핑장에서도 풍부하고 수준 높은 사운드로 음악이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 돌비 비전으로 완성한 놀라운 색감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화면 역시 영상 콘텐츠를 즐길 때 더욱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선명한 화질과 걸러짐으로 스탠바이미 Go와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든 고퀄리티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수 있는 것은 물론, 음악 감상 시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양한 보드게임 등도 지원하며 테이블 모드로 체스부터 카드게임 등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게임 플레이까지 가능하다.

02 세 가지 화면 모드로 콘텐츠에 따라 자유롭게

스탠바이미 Go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로, 세로, 테이블 모드를 지원하는 스크린을 통해 콘텐츠에 따라 적합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로 모드 기준 최대 180mm 높이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드라마, 영화를 만족스럽게 감상할 수 있으며, 세로 모드로 사용할 때도 터치스크린을 통해 검색이나 SNS, 음악 감상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위아래로 화면 높이가 조절되어 시선에 맞게 편안한 감상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기능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모니터를 접어 가벽에 놓으면 테이블 모드로 지원되어 음악을 즐길 때 마치 LP판을 돌리는 듯한 턴테이블 연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집이나 캠핑장 등 실내·외에서 인터리어 효과를 누릴



03 연결할수록 확장되는 콘텐츠 경험

각종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것은 컴퓨터를 기기에 가장 필수적인 성능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스탠바이미 Go는 거의 모든 기기 연결을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블루투스는 물론 HDMI, USB 기기 등을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성능으로 손꼽히는 화면 미러링 기능을 통해 케이블 없이도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그대로 지원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음성인식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 따라서 집이나 캠핑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멀리서 원하는 명령어를 사용해 이용하면 별도의 리모컨 없이 스탠바이미 Go를 작동시킬 수 있다.

04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는 감성적인 디자인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한 레드백 스타일의 디자인은 실용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감성을 즐기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자극한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완성한 모서리와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집 안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어도 손색없을 뿐 아니라, 감성적 무드를 선사한다. 별도의 충전 없이도 가장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케이블을 제품 안에 수납 가능하며, 심플하고 모던한 감성을 야외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가방을 열면 나오는 스크린 역시 별도의 거치대가 필요 없는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미니멀 디자인으로 어떤 장소에서든 이질감 없이 연출할 수 있다.





숲을 누리는 색다른 방법, 운동도, 기쁨도 언제 어디서든 LG 스탠바이미 Go로 자유롭게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기는 이른바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각광받고 있다. 헬시 플래저란 기쁨을 뜻하는 'pleasure'와 건강을 의미하는 'health'를 합한 신조어다. 무조건 참고 통제하던 보편화된 건강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맛있는 음식, 새로운 운동법, 자유로운 공간 등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것. 이러한 트렌드의 영향으로 숲, 바다 등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힐링을 위한 운동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하고 있다. 이에 LG 스탠바이미 Go는 고객의 변화된 요구와 낭만에 주목했다. 27형 터치 화면, 내장 스피커, 배터리를 모두 갖춘 일체형 포터블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휴대해 운동 영상을 시청하거나 원하는 음악을 재생하는 등 야외에서도 어떠한 제약 없이 자연을 그대로 느끼며 운동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돕는다.

LG 스탠바이미 Go의 터치형 27인치 대화면은 Full HD(1080p) 스크린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운동 영상을 시청할 때 느낄 수 있었던 크기나 성능의 한계를 단번에 해결하는 최적의 제품이다. 화면은 시계 방향으로 최대 90도 로테이팅 가능한 가로 모드 기준 최대 18cm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운동 자세에 맞도록 직접 조작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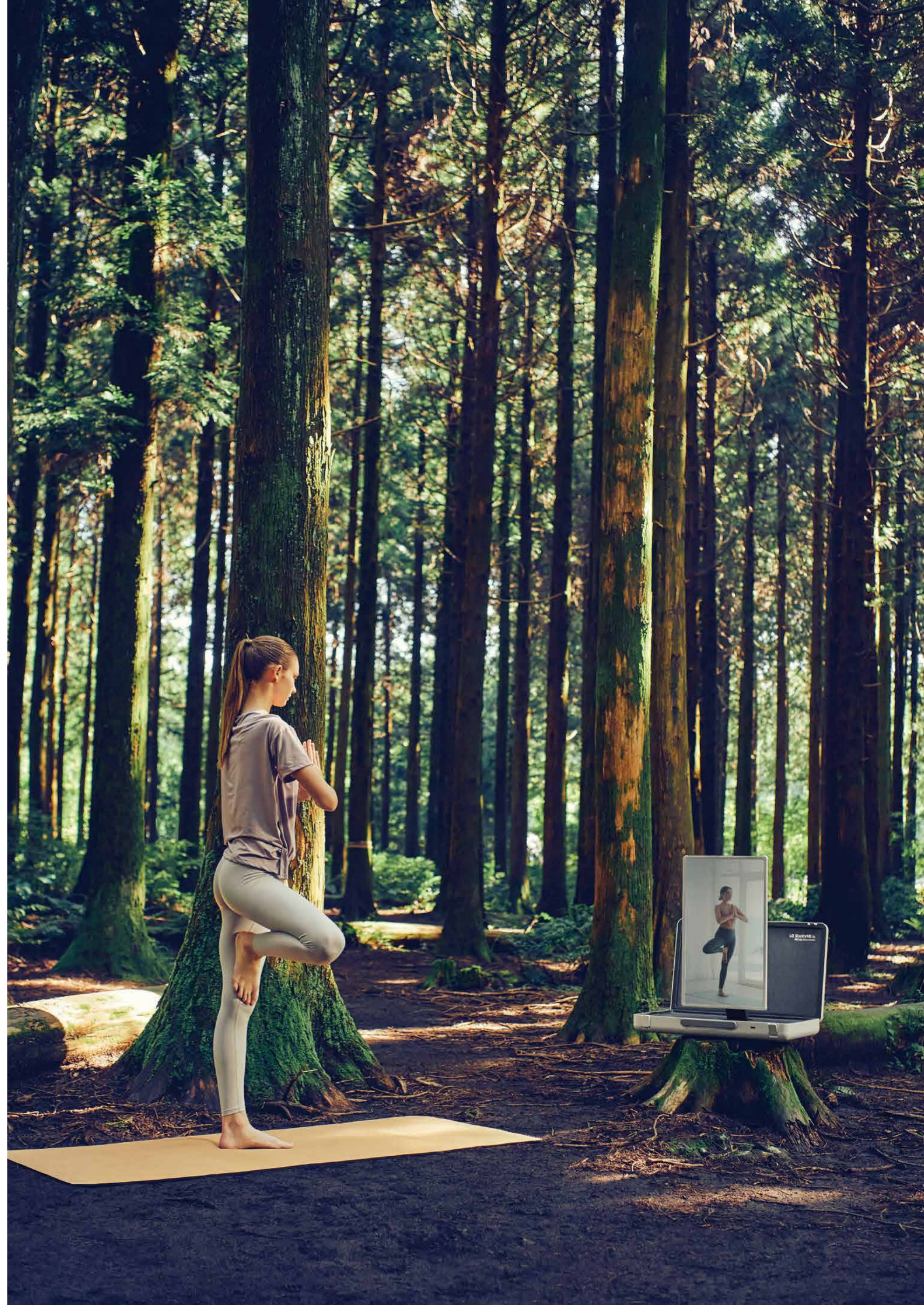
또 iOS 및 안드로이드 OS 유저 모두를 위한 에어플레이와 화면 미러링 기능으로 기기 간 간편한 화면 공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연 속 맑은 공기와 숲의 경관을 느끼면서도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어, 스스로 운동 자세를 체크하고 교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추가로 LG전자에서 소비자의 스크린 사용 경험 확대를 위해 출시한 LG 스마트 캠을 함께 사용하면 제품 간 시너지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LG 스탠바이미 Go



에 전용 스마트 캠을 별도로 설치하면 본인의 동작과 코칭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플렉시브' 플랫 폼 사용자는 스마트 캠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활용해 원격으로 실시간 강습을 받을 수 있어 실재가 아닌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운동 강습을 수강할 수 있다. LG 스탠바이미 Go는

최장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내장해, 따로 전원을 연결해 사용해야 하는 포터블 스크린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로써 '스크린은 집에서', '운동은 실내에서'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며 상쾌한 바람과 한가로운 햇빛 아래서 여유롭게 즐기는 야외 운동의 낭만을 실현해준다.





**LG 스탠바이미 Go와 함께
로맨틱한 해변에서 즐기는 프라이빗 영화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돛자리를 펴고 풍경을 즐기거나 차박을 하러 해변가를 찾는 연인이 많아졌다. 분주한 도시를 벗어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되기 마련. 탁 트인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 해변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기에 단연 최고의 여행지라 할 수 있다. 서로에게 기대어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면 낭만적이고도 고즈넉한 분위기에 푹 빠져버릴 것만 같다. 그러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로맨틱함을 즐기는 것도 잠시, 아무것도 없는 아와는 미묘한 지루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 음악 감상을 위한 스피커와 영화를 볼 수 있는 태블릿을 야외 피크닉 필수템으로 챙기곤 한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 Go는 여행의 무료함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휴대성과 놀라운 퀄리티까지 함께 선사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인과 함께 떠나는 로맨틱한 해변 여행, 이번에는 LG 스탠바이미 Go와 동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템으로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도록 하는 LG 스탠바이미 Go의 가장 큰 매력은 마치 감성 피크닉 소품을 떠올리게 하는 아기자기한 레디백 스타일의 외관이다. 귀여운 여행 가방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은 여행 감성을 한없이 자극해 당장이라도 들고 어디로든 떠나고 싶게 만든다. 이렇듯 감각적인 외형을 이루는 소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세심한 테스트를 통해 선별됐다. 또 미국 국방성 내구성 테스트(Military Standard)에서도 11개 항목(충격, 낙하, 저압 2종, 고온 2종, 저온 2종, 먼지, 진동, 염무)을 통과하며 탁월한 내구성까지 갖추어 걱정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LG 스탠바이미 Go는 케이스를 여닫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어 번거로운 조립이나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터치 스크린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리모컨 없이도 채널 변경, 음향 조절, 검색 등 손쉬운 조작이 가능해 야외에서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무엇보다 LG webOS를 적용해 주변 기기 연결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다양한 국내의 대표 OTT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덕분에 집에서만 즐기던 인기 드라마와 예능을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에서의 음악 감상이나 영상 시청은 여러모로 불편함을 가져온다. LG 스탠바이미 Go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20W 출력 스피커를 탑재해 화면 앞쪽에 자동 발신해 더욱 또렷한 소리를 출력하도록 설계했다. 게다가 입체적인 사운드 기술을 적용해 전방위 입

체 음향을 구현하는 돌비에트모스 음향 기술과 4.0ch 전면 지향 스피커로 별도 음향 기기를 챙길 필요 없이 최상의 사운드 품질을 자랑해 외부 소음으로 몰입감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최신 영상 기술인 돌비비전을 적용해 현장감 넘치는 영상미를 구현하는데, 이는 프레임 단위로 영상의 명암을 분석하고 조도 센서로 공간 밝기를 감지해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두운 차 내부든, 햇빛의 방해로 받는 바닷가든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감성과 재미뿐만 아니라 우수한 퀄리티까지 겸비한 LG 스탠바이미 Go. 이것이 해변이나 차박 데이터를 즐기는 연인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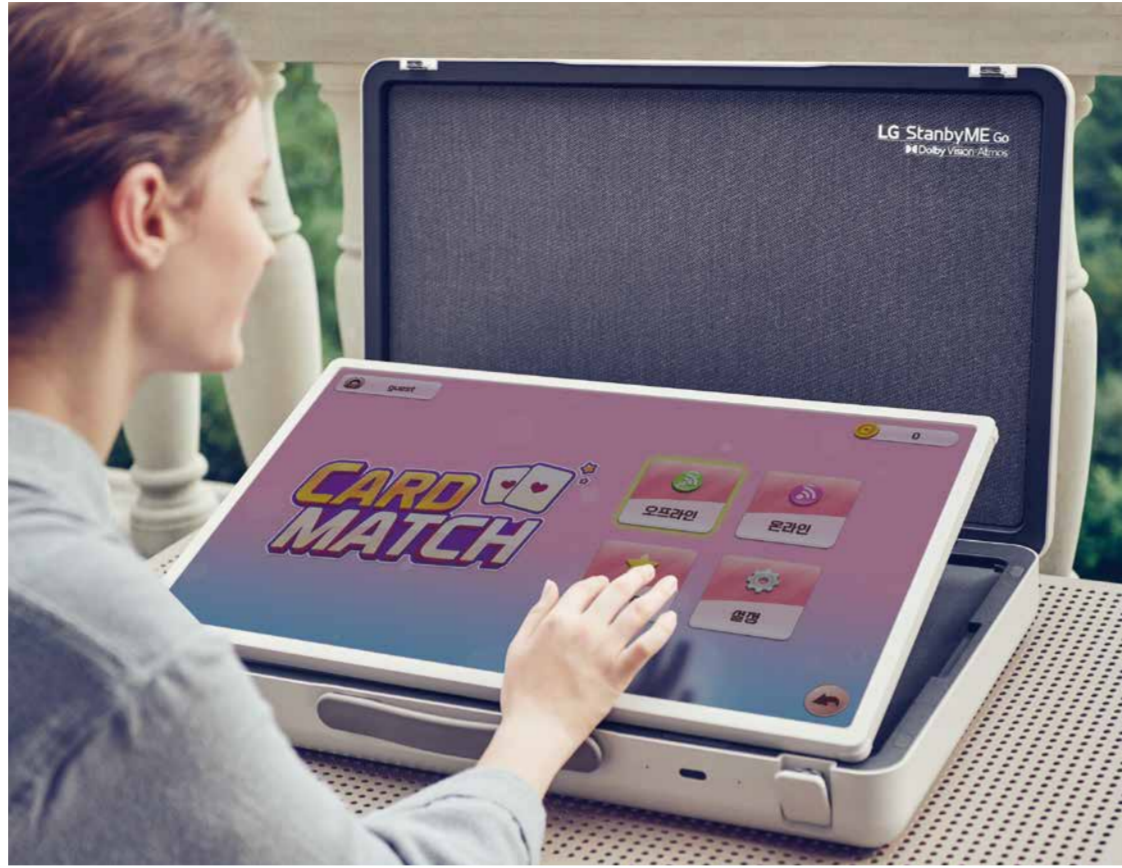


**자투리 공간까지 살리는 나만의 애착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러 물건을 쌓아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두어 활용도가 낮았던 자투리 공간을 이색적으로 활용하는 트렌드가 생겨났다. 발코니와 같이 집 안 구석구석 숨어 있던 소소한 공간을 홈 카페, 미니 영화관, 게임방 등으로 탈바꿈시켜 굳이 외출하지 않더라도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것.

LG 스탠바이미 Go는 이러한 집 안 틈새 공간 활용의 로망을 간단히 실현해준다. 낮에는 나른한 햇살, 향긋한 커피와 함께 가로 또는 세로 모드로 유튜브나 틱톡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해가 서서히 지는 저녁 무렵에는 영화 또는 힐링테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힐링테마는 LG 스탠바이미 Go에서 기본 제공하는 콘텐츠로 아침 햇살, 비, 눈, 모닥불, 노을 지는 해변 모습 등 다양한 분위기와 계절감을 담은 여덟 가지 영상으로 이루어졌다.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잔잔한 소리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지루하지 않게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어 지친 뇌에 휴식을 준다. 힐링테마는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실내든 물론 실외 어디서든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LG 스탠바이미 Go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즐거움을 더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이루어져 발코니를 금세 놀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화면을 놓친 테이블 모드에 특화된 여섯 가지 보드게임을 기본으로 갖추어 친구, 가족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HDMI 포트를 통해 X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의 게임 콘솔 연결도 가능해 원하는 게임을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다. LG 스탠바이미 Go 내부에



는 리모컨, 충전 선 등 제품 액세서리를 별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발코니가 다소 협소하더라도 따로 수납함을 만들 필요가 없고 분실할 위험 또한 줄일 수 있다. 또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캐리백 형태의 디자인 덕분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하는 등 공간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면서 활용도까지 향상시킨다.

발코니, 테라스, 마당 등 집 안 자투리 공간을 더욱 유용하고 실용적인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LG 스탠바이미 Go와 함께 실재 없는 공간 활용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짐 가득한 창고나 발코니를 힐링 가득한 나만의 공간으로 변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의 LGE.COM 에디터 **상영빈**



like second skin

화사하면서도 촉촉하다. 게다가 맨 얼굴처럼 자연스럽게 매끄럽기까지.
올가을 가장 기대되는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템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가운데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소프트 매트 이드**
텐스드 퍼펙팅 파우더 클리프 브랜드만의 오일 컨트롤
기술로 오랜 시간 보습한 피부 표현을 유지해주며,
특히 코피 바터를 인한 윤모 미네랄 생명이 스킨처
럼 부드러운 피부를 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9g 5
만5천원, 문의 080-564-7700

글레드보 보네 레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듀이 SPF
25, PA+++ 불가역한 로즈 추출물을 함유해 촉촉함
과 광채가 오랫동안 지속되며, 4번 번 레이어에 의해 발
라도 무-짐 없이 피부 결정을 가차해 화사한 톤을 선
사한다. 15g 12만5천원, 문의 080-564-7700

디올 뷰티 디올 포에버 벨벳 베일 프라이머 모공과 결
점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장점이 돋보인다. 또 이이
리스 추출물을 함유한 가볍고 섬세한 포플라가 피부
를 편안하게 해주며, 메이크업 지속력까지 한층 높여
준다. 30ml 8만5천원, 문의 080-342-9500

결망 베퀴르 골드 24K 베이스 젤 타입 포플라가 바
르자마자 피부에 수분감과 놀라운 광채감을 부여한
다. 또 밀착력을 극대화해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을 위한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준다. 35ml 11만원,
문의 080-343-9500

메이크업 포에버 HD SKIN 매트 벨벳 파우더 파운데
이션 한층의 터치만으로 작은 모공까지 꼼꼼히 커
버하는 아이젠. 무엇보다 가볍고 알게 밀착되어 속망
감이 없는 편안함을 자랑한다. 디크닝이나 물안힘 현
상 없이 오랫동안 고급스러운 피부를 연출하는 것도
장점. 11g 6만2천원, 문의 080-514-8942

데코르테 쟈 웨어 고급스러운 세미 매트 피니시를 연
출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눈여겨볼 것. 피부 결정을
가차해 매끈하고 청문된 피맛결로 연출해준다. 미세
한 파우더 입자가 피부에 고르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
이다. 30ml 7만4천원, 문의 080-568-3111
에디터 **윤자경**



이시영 촬영

Perfume Heaven

당신의 특별한 취향과 분위기를 표현할 뉴 퍼퓸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가운데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바리 가디스 오 드 퍼퓸** 풍성한 우디 향으로 시
작해 우아한 바닐라 향으로 마무리된다. 부드러운 바닐라 앤솔루트의 진함이
유우처럼 말랑하게 남아 고급스러운 무드를 선사한다. 50ml 17만4천원, 문의
080-850-0708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 미 프랑스** 남부 프랑스에서 재
배한 로즈 섀티플라아 향에 매그놀리아 에센스와 블랙 아이리스의 관능미를 더
한 풍성한 플로럴 향이 특징이다. 여가 때 재래농 바닐라 향이 터져 나오듯 펼
쳐져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향을 느낄 수 있다. 90ml 18만5천원, 문의 080-
564-7700 **디올 자도로 로르** 하우스의 선구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자도로의 플
로럴 부케를 오렌지 불라상과 재스민 그랜드 플로럴, 산티폴리아 로즈 앤솔루트
노트로 더욱 풍부하고 강렬하게 재해석한 퍼퓸. 은은하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
운 관능미를 선사한다. 50ml 28만원, 문의 080-342-9500 **앤젤리나스 키
스 오브 블리스 EDP** 햇살 가득한 날과 기분 좋은 아침에서 영감을 이탄한 퍼
퓸으로 베르가모트와 네 알 클로버, 재스민, 파출리가 아우라져 시원하고 상쾌
한 향조가 특징이다. 100ml 34만7천원, 문의 080-363-5454 **조 말론 란던
인글리쉬 피어 앤 스윗 피 코롱** 따뜻한 날씨, 과수원 나뭇가지에 초록빛 배가 주
렁주렁 열린 이미지가 떠오르는 향. 신선한 라임 플로럴 계열로 뿌리까지
달콤한 스위트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파우더리한 화이트 마스크 향으로 마
무리된다. 100ml 22만원, 문의 02-6971-3228 **에르메스 투티 트윌리 데르
메스 오 드 퍼퓸** 진저 향이 퍼퓸 중심에 자리 잡아 섬세함을 부여하고 포근한 머
스크와 아우라져 달콤한 느낌을 선사한다. 중점도를 연상시키는 화이트 보드 캡
또한 이 퍼퓸의 키워드 포인트. 50ml 15만7천원, 문의 02-310-5174 **홀리
아이리드 워드 오 드 퍼퓸** 귀한 원료로 손꼽히는 아이리스 앤솔루트를 꽃이 어
닌 뿌리에서 추출해 따뜻하고 섬세한 아이리스 향을 느낄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신선한 바이올렛 인플라카, 사타, 그레이 앵버 향이 아우라져 세련된 관능미를
느낄 수 있다. 100ml 25만2천원, 문의 1644-4480 에디터 **윤자경**





RALPH LAUREN

INTRODUCING THE RL 888

랄프 로렌 컬렉션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